



수업 개요

❖ 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문제

-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 나누기
- 임신중절에 대한 입장과 윤리적 문제

❖ 새 생명의 탄생

- 임신의 의미
- 태내기 발달
- 태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신중절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도덕적 허용 여부	윤리적 관점	관심의 초점
임신중절은 결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의무론	태아 (생명이 어떤 경우에도 존중 받아야 함)
임신중절은 항상 도덕적으로 허용 될 수 있다	여성주의	산모 (산모입장에서 이익이 된다면 가능함)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공리주의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으로 상황에 따라 다름)

태아를 둘러싼 논의 : 태아는 인간인가?

논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가) 유전적 구조의 동일성 (나) 일정한 생리학적 특징의 발달 여부 (다)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잠재성 (라) 영혼의 존재 여부

- 위의 기준에서 태아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인간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
 - (가) 기준 : 인간으로 간주 / (나)기준 : 생리학적 특징 발달 이후
 - (다) 기준 : 인간으로 간주 / (라)기준 : 태동 이후(카톨릭 관점)
- 이 가운데 어떤 기준을 택할 것인가: 임신중절 시기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함
 - 인간의 생명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데 만약 어느 시기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면 이 이후 임신중절은 살인행위가 될 것임

태아의 도덕적 지위

- 태아는 하나의 인간이다.

→ 수정될 때부터 하나의 인간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태아는 인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

→ 태아는 사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보다는 인간의 세포조직에 가깝다.

따라서 임신중절을 어떤 시기라도 시행할 수 있다.

- 태아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다.

→ 태아는 성인과는 다른 하나의 인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임신중절에 함의하는 바가 크지 않다. 잠재성을 가진 존재에게 어떤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태아의 도덕적 지위

- 태아의 발생 단계에 따라 달리 파악해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입장이다. 태아의 발생시기에 따라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단계부터 태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구분하기 애매하다.

- 동물에 비할 수 있다

→ 태아의 지위를 동물에 비한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임신중절 반대 논변

- 태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의무론)
- 태아는 부모와는 완전히 별개의 인간이며, 성장과정은 연속적이다.
어머니의 권리 < 태아의 권리
- 임신중절은 일상적인 정당방위 조건과 무관한 행위이다.
 - 정당방위 조건
 - B의 존재가 A의 생존에 위협이 되어야 한다. (위험조건)
 - B가 A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으려는 시도를 한다. (시도조건)
 - B가 A의 생명을 뺏으려 하는 시도에 책임이 있다. (유죄조건)

보수주의적 입장

- 생명 우선론자 :
 - 생명의 신성성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기반으로 임신중절 반대입장
 - 기독교 윤리 :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성과 신성한 것
인간의 생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스러운 것
→ 따라서 의도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생식을 규제하는 불법적인 행위
- 다른 보수주의적 입장 :
 - 태아는 임신순간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무고한 인간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 인간의 태아는 무고한 존재이다.
 -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임신중절 찬성 논변

여성에게는 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여성주의)

- 산모에게 초점을 둠/ 산모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된다.

산모의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면 가능하다.

어머니의 권리 > 태아의 권리

공리주의

- 산모의 권리가 항상 우선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자유주의적 입장

• 선택 우선론자 :

- 태아는 생명이나 신체상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이 모든 것에 우선하며 여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임신중절이 가능함.**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혹은 신체 속에서 일어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
- 태아가 생명의 권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산모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비중이 크다고 주장.**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신체적 자율권 사이의 우선성 논쟁이 일어남.

절충주의적입장(드워킨과 싱어)

임신중절에 대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입장의 불충분성을 논증하면서 각각 임신 중절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재설정하고자 함.

- **Peter Singer(피터 싱어)** : 벤담의 공리주의적 입장 계승

- 보수주의적 논변이나 자유주의적 논변 역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태아가 과연 아직 자신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단계에 있다면, 임신 중절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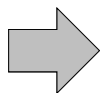
- **Ronald Myles Dworkin(로널드 드워킨)** :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 계승

- 태아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중히 하되, 다른 한편 산모 삶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도 고려하여 둘을 신중하게 저울질 하는 것만이 임신중절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판단에 이르게 한다.

법과 생명보호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상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생명권

- 특히 태아의 생명권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보호

법과 생명보호

❖ 형법 제 27장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법과 생명보호

❖ 모자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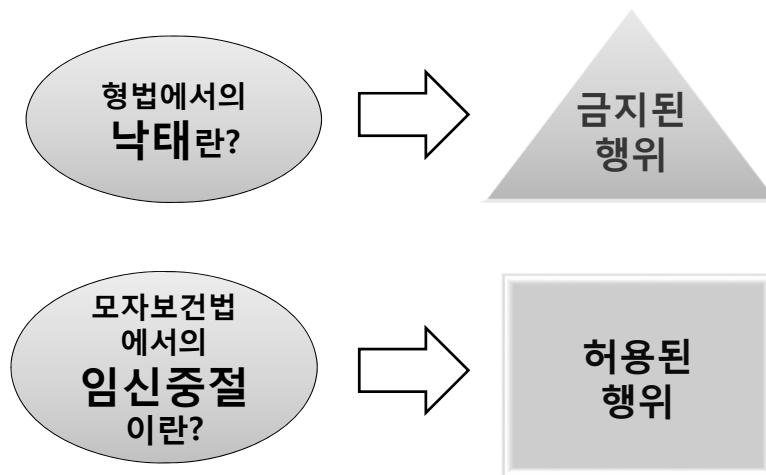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과 생명보호



토의: 임신중절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토의 주제: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학우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 읽기 자료: 낙태 논쟁

※ 찬성: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 반대: 생명보호 의무를 포기할 것인가?

- 낙태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근거

- 태아의 입장 / 여성의 입장

태내기 발달

태아는 자궁 속에서 이미 학습을 시작한다



태내기 발달



태내기 발달 과정: 태아는 자궁 속에서 이미 학습한다

태아는 느끼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존재

8주 - 머리, 팔, 몸통을 움직임

16주 - 웃거나 얼굴을 찡그림

16주가 된 태아는 빛에 민감하여 얼굴을 찡그림

24주 - 듣는 능력이 있음

24주가 된 태아는 소리를 감지하고
엄마, 아빠 목소리 구별
태내에서 들었던 심장박동 소리가
우리가 가진 음악의 기호 결정



자궁 속에서 이미 엄마의 감정을 알고 있다

- 태아에게 음악을 매일 5~6분 정도 들려주면 아이가 편안해 함.
- 태아의 기억능력은 임신 6, 7개월부터 시작함.
-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는 태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함.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엄마의 감정을 느끼고 읽는다.
- 6개월에 되면 엄마의 말소리에 리듬을 타고 반응
- 엄마의 스트레스를 아기도 느낌.
- 엄마가 흡연을 하려는 생각만으로도 태아의 맥박이 빨라짐.

자궁 속에서 성격이 결정된다

- 자궁은 아이에게 최초의 세계 : 태아가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 태아의 성격, 인격이 다르게 형성
- 행복한 생활을 하는 부부에 비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는 신경질적인 아이가 될 확률이 5배가 됨
- 적대하고 싸우는 부부 사이에서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날 위험이 237% 높음

엄마의 사랑이 아기가 받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보호벽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임신부 스트레스의 영향

스트레스 높은 어머니의 아이가 더 잘 운다. (독일연구)



<임신과 출산>

임산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이가 잘 운다?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보잘까?”, “왜 이렇게 잘 울까?” 라는 질문을 해 본적이 없는가. 다른 아이와 비교해보았을 때 유독 까다롭게 내 아이가 잘 운다고 느껴진다면 임신했을 때의 기억을 회상해보자.

독일의 한 대학(University of Munich and Trier)에서는 임신부 스트레스와 영아의 울음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종단연구란 같은 대상을 가지고 적정 시기에 순차적으로 측정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86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영아가 6주, 3개월, 6개월 되었을 때 각각 우는 정도를 측정하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임신했을 때 가족관계, 대인관계, 재정상태, 근무상태, 생활패턴, 신체건강, 법적갈등 등에 있어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지각한 어머니의 경우 아이가 6주, 3개월, 6개월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어머니 집단보다 영아가 더 잘 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신부의 스트레스가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출산 후에도 어머니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영아 간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임신했을 때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는 추후 잘 보채고, 잘 우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아의 울음을 줄이고, 부모-영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예비부모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그들의 정서적인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임신기 때부터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를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가족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임신부 스트레스의 영향

임신 중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쉽다. (영국연구)

심한 스트레스로 엄마의 신경호르몬이 대량 방출하여 태아의 스트레스 방출시스템에 변화, 이는 앞으로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침.

임신부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가 왕따된다

뇌과학 | 유관동 기자 | 입력 2015년 11월 19일 (월) 11:23

페이스북 트위터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집단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워릭대학 디터 울케(Dieter Wolke) 교수는 8,829명의 부모와 자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엄마의 신경호르몬이 대량 방출돼 혈류를 따라 태아의 스트레스 반응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아이가 스트레스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울거나 도망가는 등의 행동으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울케 교수는 "과거 연구에서 임신 중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결과는 있었지만 집단 괴롭힘 등 왕따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에 발표했다.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임신부 스트레스의 영향

임신 중 스트레스가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며 남자 태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함

임신 중 스트레스, '남아'에 더 해롭다

최종수정 2015.05.05 10:12 기사입력 2015.05.05 10:01

페이스북 트위터

남자 태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
자폐증, 자아분열증 빈도수도 더 많아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임신 중 겪은 스트레스가 남자 태아의 두뇌 발달에 더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데일리에일은 4월(현지시간) 국립과학아카데미 저널의 최신 논문을 인용해 임신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며, 남자 태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은 임신한 알컷 쥐를 대상으로 임신 첫 주 동안 익숙하지 않은 소음이나 냄새 등 가벼운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단백질 및 신경세포 형성, 에너지 생성에 쓰이는 'OGT' 효소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수컷과 암컷의 OGT수치 비교를 통해 남자 태아가 초기 발달에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단백질 손상이 남자와 여자의 두뇌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서 "일반적으로 남자 자손에게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트레이시 베일 박사는 "임신한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태반을 통해 태아와 상호작용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신경발달 질병에 대한 중요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 pregnant woman's belly with fetus.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흡연



흡연의 영향 :
유산, 사산, 조산,
영아 돌연사,
저체중아, 미숙아

산소결핍 :
태아 폐의 발달에 영향,
학습 결함, 기억 결함

임신 중 흡연을 증가, 간접흡연 노출이 유아기 이후 문제행동에
영향, 배아가 담배연기에 노출되면 배아의 초기발달을 저해하는
유전자 활동 촉진(Bernstein, 2012)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음주

임신 전 부부의 건강 체크 : 음주 자제

임산부의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증상,
몸무게가 평균치에 미달

지능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음,
학습부진 및 성격 불안, 주의산만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 여성은 임신한 후 거동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클림트 그림 속 여인처럼 여전히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하다.



Thank you !